

# welcron<sup>+</sup>*in*

2012 WINTER Vol.03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WELCRON

(주)웰크론  
(주)웰크론강원  
(주)웰크론한택  
(주)웰크론헬스케어



# Beyond the Best



한국의 ‘피겨 스타’. 아니, 세계의 ‘피겨 여왕’ 김연아가  
1년 8개월 만에 또 한 번의 신화에 도전합니다.  
사실 지난 2010 밴쿠버 올림픽 쇼트와 프리 프로그램에서  
환상적인 연기로 가뿐히 금메달을 손에 넣은 김연아는  
이후, 피겨스케이팅 선수생활을 지속할지 잠시 고민하며 방황했었습니다.  
7살 때 피겨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한 김연아의 최종목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때문에 그토록 소망하던 금메달을 가지게 됐을 땐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를 이룬 셈이었죠.

성공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목표로 하는 점에

도달했을 때 잠시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비단 그것이 겸손하지 않아서나 불순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기에

막상 목표지점에 도착해서는 다음 이정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웰크론그룹은 4개사가 가족이 된 이후,

크고 작은 결실을 보이며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를 넘어 전설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기위해 성공 이후의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 welcron<sup>+</sup>in

2012 WINTER Vol.03

웰크론그룹 사보‘웰크론인’



### 표지 이야기

좌측부터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최주호 사원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이승민 사원

웰크론 개발팀 박진수 차장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양수진 계장

웰크론 청구사업팀 반홍수 대리

발행일	2012년 12월 14일(통권 제3호)
발행인	이영규
발행처	(주)웰크론 홍보R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tel. 02.2107.6742 / fax 02.539.8115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주)윙왕아이디 tel. 02.2264.1347
인쇄	은성D&P tel. 02.461.0313

### contents

#### Hello! Welcron

04 Special Theme  
더 큰 꿈을 실현하는 힘, Beyond the Best

08 Focus 01  
웰크론그룹 20주년 창립 기념식

12 Focus 02  
웰크론그룹 한마음 체육대회

#### People & People

14 Zoom in Story  
세사리빙 CF촬영현장

18 우리는 패밀리  
웰크론한텍 ENC사업부

22 찰칵! 현장 스케치 01  
웰크론그룹 2012 야간행군

24 세계를 가다  
웰크론강원 \_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형 보일러 수출 현장  
웰크론그룹 \_ 베트남 법인 설립

30 해피투게더  
사랑의 연탄나눔 현장

32 웰크론은 지금  
웰크론한텍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현장

36 찰칵! 현장 스케치 02  
웰크론그룹 한마음 마라톤 대회

38 생생 가족여행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김인수 부장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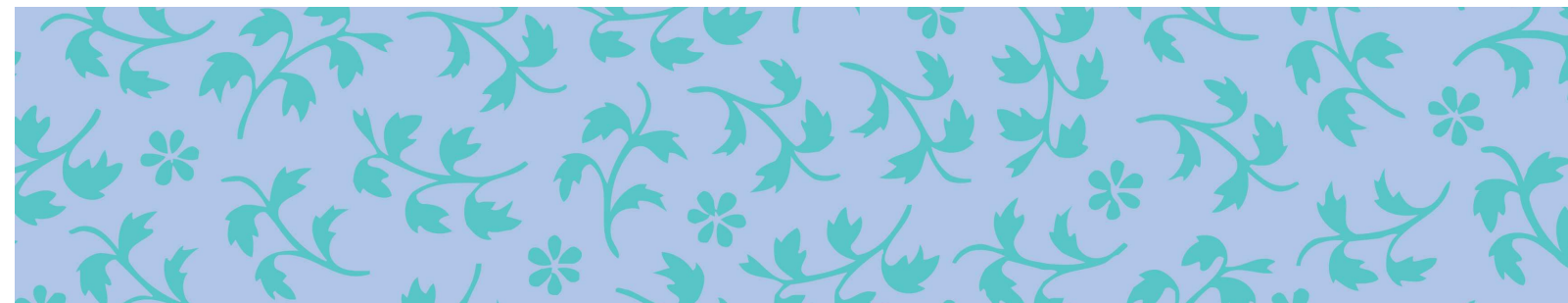
#### Green Life

42 신제품 talk! talk!  
웰크론헬스케어 예지미인 신제품

44 Money & Trend  
2013년 경제전망

46 News

50 빨간우체통



## Special Theme

더 큰 꿈을 실현하는 힘,

# Beyond the Best



웰크론의 폭발적인 성장은 경이롭다. 나라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들고 누구나 입만 열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웰크론은 그런 말을 비웃듯이 독아청청하고 있다. 아마 임직원들의 기업가 정신과 부지런함이 그런 결과를 낳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좋은 일에는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른다. 자칫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 첫째, 생존부등식을 만족시키는가

생존부등식은 전 서울대 윤석철 교수가 제안한 개념이다. 간단하다.  $Cost < Price < Value$  가 그것이다. 즉, 원가보다 가격이 높고, 가격보다는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이 높으면 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보다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고, 제품가격보다 가격 대비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이 커야 한다는 개념이다. 실로 단순하지만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부등식이 뒤집어지면 그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다. 반대로 차이가 클수록 그 조직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가격 대비 원가는 생산성의 싸움이다. 같은 제품을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일본 유니클로는 이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뜻한 내복 히트택이 채 만 원이 되지 않고, 양복 안에 도 입을 수 있는 점퍼가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제품을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들 수 있을까?



“기업은 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경영에서 경(經)이란 밭줄이나 끈으로 줄을 쳐 놓는다는 말이고, 영(營)이란 줄을 쳐 놓은 돌레를 두루 쌓는다는 뜻이다. 경영이란 집을 짓거나 길을 닦을 때 미리 해놓는 측량계획이다.”

가격 대비 만족도는 창의성 싸움이다. 세상에 없는 끝내주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생존부등식에 대입해 보길 권한다. 어떤가? 원가 대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가?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창의성을 높일 것인가? 조직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두 축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 둘째, 본업에 충실하라

개인이나 조직이나 자신의 업에 충실해야 한다. 교수면 교수답게 가르치는 일과 연구에 충실해야 하고, 기업가는 경영에 충실해야 한다. 본질에 벗어나 교수가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기업가가 탄장을 하면 위험하다. 조직도 그러하다. ‘우리는 무엇으로 밥값을 하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한다.

업은 한 마디로 주특기로 보면 된다. 혼마라는 일본의 골프채 회사는 원래 일본도(日本刀)를 만들던 회사다. 쇠를 두들겨 만드는 단조방식으로 칼을 만든다. 그런데 수요가 줄면서 위기에 빠진다. 이 주특기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골프채 만들기로 한다. 그러면서 최고의 골프채 회사가 된다. 미국의 마블은 만화회사였다. 하지만 IT의 발전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다 자신들이 가진 콘텐츠인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을 영화에 제공함으로써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출판업에서 콘텐츠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웰크론은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

“기업은 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경영에서 경(經)이란 밭줄이나 끈으로 줄을 쳐 놓는다는 말이고, 영(營)이란 줄을 쳐 놓은 돌레를 두루 쌓는다는 뜻이다. 경영이란 집을 짓거나 길을 닦을 때 미리 해놓는 측량계획이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말이다.

## 셋째, 사업, 시장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늘 염두에 두라

포트폴리오는 분산투자를 뜻하는 증권용어다. 달걀을 한 곳에 넣었다가는 한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한 사업이 어려워져도 다른 사업에서 벌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납품 비중이 90%이상인 회사는 위험하다. 삼성전자에서 납품 을 줄이는 순간 그 회사도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품, 시장,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야 한다.

제품은 BCG(보스턴컨설팅그룹) 매트릭스를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한 축은 성장성이다. 성장성이 높고 낮다로 되어 있다. 다른 축은 수익성이다. 수익성이 높고 낮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종류의 사업이 나온다. 수익성도 높고 성장성도 좋은 사업이다. 최고다. 수익성도 낮고 성장성도 낮은 사업이다. 최악이다. 정리하는 게 좋다. 성장성은 그저 그런데 수익성이 괜찮은 사업이다. 대부분 현재 사업이 그렇다. 문제는 성장성은 높아 보이는데 아직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게 바로 미래 신성장동력이다. 기업이 영속하려면 현재 사업에서 돈을 벌어 신 사업에 투자해야만 한다. 만약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단 물만을 쪽쪽 빨면서 즐긴다면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 현재 웰크론은 어떤가? 현재 사업 이상으로 신 사업을 키우는데 애를 쓰고 있는가?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도 애를 쓰고 있는가?



## 넷째,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인원이 100명 이하, 기백 억 매출까지는 사장 혼자서 개인기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탑 못지않게 중간허리가 강해야 한다. 사장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고 그를 실행할 부대가 막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되지 않으면 리더십파이프라인이 막힌다. 상사의 리더십에 실망한 A급은 빠져 나가고 쭉정지만 남아 그렇고 그런 회사로 전락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그렇다. 핵심은 교육이다. 대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팀장이나 임원을 위한 리더십프로그램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되지 않는다. 성과는 나지만 리더십이 없을 수도 있고, 사장 앞에서는 썩썩하지만 부하직원들은 쥐 잡듯이 하는 임원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웰크론은 어떤가? 팀장은 팀장 역할을 하고, 임원은 임원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혹시 웰크론의 비전을 보고 들어왔다 상사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은 없는가? 사람이 전부다.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해야만 한다.

## 다섯째, 가치지향적인 회사가 되어라

대부분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 그 자체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풍요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돈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 이상을 원한다.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치 지향적이다. 스니커즈, 트윅스, M&M 초콜릿을 만드는 마즈가 그렇다. 이 회사는 1911년 설립되어 올해 101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세계적인 껌 리글리를 인수했고 커피를 비롯한 각종 식품사업, 대체원료를 만드는 연구소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5가지 철학을 갖고 있다. 품질(Quality), 책임(Responsibility), 상호성(Mutuality), 효율성(Efficiency), 자유(freedom)가 그것이다. 품질은 탁월성을 뜻한다. 제품 품질은 물론 업무능력, 역량 면에서 탁월함을 목표로 한다. 책임이란 모든 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상호성은 회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해당사자와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효율성은 자원이용에 절대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프로세스에도 해당된다.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 생활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사장의 생각 혹은 이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의 의사결정이 우리 철학과 일치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웰크론의 철학은 무엇인가? 왜 사업을 하는가? 그 철학이 직원들에게도 깊이 심어져 있는가? 그 철학대로 사업을 하는가?



## 여섯째, 기존의 성공을 조심하라

수에즈운하의 건설영웅은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 레셉스다. 그는 1859년부터 10년간의 대역사를 통해 홍해와 지중해를 관통하는 수에즈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덕분에 그는 1881년 파나마운하 건설책임자가 된다. 과거성공에 고무된 레셉스는 수에즈와 파나마지역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모든 공사를 수에즈식대로 진행했다. 수에즈지역의 경우 평균 높이는 해발 15m에 불과하지만 파나마지역은 150m나 되었고 기후도 사막 건조형과 열대 우림형으로 매우 달랐다. 레셉스는 해면과 같은 높이의 운하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도록 지시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150m를 파 내려가는 공사방법은 자살행위와 같았다. 8년 동안 2만 2천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등 공사현장은 전쟁터와 같았다. 결국 3억5천2백만 불의 비용이 날아가고 공사는 중단됐다. 레셉스가 실패한 이유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자기능력과 방식만을 고집하고 갑문식 운하라는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거부한 탓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천문학적인 돈을 날리게 되었다.

한 번의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생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다. 핵심 중 하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용인하고, 상하간 부서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비전에 상하가 동의하고 등등... 그동안의 성공적인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냉정하게 잘 한 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보길 권한다. 전 직원이 모여 5년 후 웰크론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각자의 역할, 그런 미래가 왔을 때 개인의 모습도 그려보길 권한다. 회사가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회사가 희망이다.





## 웰크론그룹 20주년 창립 기념식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나아갈  
웰크론,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5월 19일 웰크론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웰크론의 스무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웰크론한텍, 웰크론강원, 웰크론헬스케어 가족사의 임·직원 물론, 가족들과 협력업체 1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Happy birthday, welcron!



웰크론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이영규 회장의 개회선언 후 웰크론의 홍보영상이 펼쳐지며 시작됐다. 웰크론이 걸어온 그동안의 행적들이 영상으로 지나가자 웰크론 가족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전병헌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영규 그룹회장은 기념사와 비전선포석에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과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을 2022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2년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시가총액 2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웰크론 가족들 앞에서 선포했다. 이영규 회장은 "향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수많은 선진기업들을 본받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2022년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웰크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웰크론 창립 15주년 기념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 재미와 감동이 있는 웰크론 가족들의 파티

개그맨 김한국의 사회로 마술쇼,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 품격있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웰크론의 20주년 기념식을 한껏 고조시켰다. 한창 기념식이 진행되던 중,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웰크론 가족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다. 각 가족사에서 끼와 열정으로 무장한 8팀이 무대를 꼭 채웠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게다가 개그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객석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내내 웃음바이러스가 마구 퍼져갔던 웰크론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이영규 회장의 폐회선언과 함께 마무리 됐다. 이날 웰크론 가족들은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 번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 WELC

웰크론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변경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영규 회장은 직접  
시원하게 노래 한국을  
뽐으며 웰크론 가족들의  
흥에 보답했다.



웰크론 가족들이 다양한 퍼포먼스와 장기로 무대를 후끈 달궜다.

이날 장기자랑의 1등은  
웰크론헬스케어의  
김동순 사원 외 3명에게,  
2등은 웰크론한텍의  
이중현 사원 외 3명과  
웰크론한텍의 한유리 사원 외  
6명에게 돌아갔으며,  
웰크론의 이동건 사원 외  
2명이 4등을 차지했다.



## WELCron Awards

행운권 추첨에서 1등 동남아 여행권(3박 5일)의  
행운은 디자인징(웰크론 상품기획팀 협력사)이  
차지했으며, 2등은 박세정 (헬스케어 김기영  
차장 배우자)씨가 42인치 LED TV를,  
필하우스(웰크론 창구 생산팀 협력사)가 3등  
상품인 세탁기를 받았다.





# 웰크론이 힘차게 도약하던 날, 웰크론 step up!

웰크론그룹의 창립기념식이 있던 5월 19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는 웰크론그룹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웰크론그룹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웰크론 176명, 웰크론강원 88명, 웰크론한텍 62명, 웰크론헬스케어 73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과 회사별 협력사들을 포함한 814명이 자리에 참석해 그야말로 '축제 한마당'을 벌였다.

12



웰크론 가족들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13



## 웰크론,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 한판을 벌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는 웰크론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팽팽하고 있었다. 다같이 열맞춰 준비운동을 하고 구기종목 경기부터 시작했다. 남자는 축구와 족구를 겨뤘고 여자는 발아구와 피구로 불꽃튀는 접전을 벌였다. 경기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여기저기선 웰크론 가족들의 우렁찬 응원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번외 경기로 협력업체들과도 팀을 짜서 족구한판을 벌이니 더욱 흥이 났다. 구기종목 경기를 마치고 이어진 점심시간. 웅기증기 모여 점심도시락을 먹는 웰크론 가족들은 꼭 소풍이라도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각 가족사 별로 조를 이루어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등 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어 더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랜만에 야외로 나온 웰크론 가족은 서로 땀흘리고 몸을 부딪히며 웰크론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종합우승은 웰크론헬스케어가 차지했고, 뒤이어 준우승은 웰크론, 3등과 4등은 각각 웰크론한텍과 웰크론강원에게 돌아갔다.





세사리빙 CF촬영현장

## 세사리빙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세사리빙  
엄정아

지난 9월 2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가 꽤나 들썩었다. 바로 세사리빙의 새로운 CF촬영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로서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온 배우 엄정아가 세사리빙의 새얼굴이 되었다고 하니 그 촬영장으로 가보자.

### 세사리빙 CF촬영장 속으로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에도 촬영장 분위기는 종일 분주했다. 한쪽에서는 촬영이 한창이었고 그 옆에서는 다음 씬을 위해 세트를 만들고 소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많은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이 분주한 가운데 엄정아 씨는 연기에 집중하면서 중간 중간 촬영된 영상을 보며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모습이었다. 때론 여배우답게 도도하고 간간한 표정연기를 하다가도 아역모델과 호흡을 맞출 때는 천상 엄마의 모습을 보여 현장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을  
꼼꼼히 따져 보며  
세사리빙의 친구를  
단번에 선택했다고 하는  
빈틈없는 엄마,  
엄정아 씨





빈틈없는 여자가 선택한 빈틈없는 침구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염정아 씨는 최근 목소리 나는 육아생활을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실제로 아이들의 건강을 꼼꼼히 따져 보며 세사리빙의 침구를 단번에 선택했다고 하니 빈틈없는 엄마답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친환경 침실 전문점 브랜드 세사리빙의 제품은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원사를 촘촘하게 직조한 마이크로화이버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원리로 아토피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 진드기의 이동 및 서식을 차단해 어린이나 호흡기질환자를 둔 가정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야말로 '빈틈없는 여자' 염정아가 선택한 빈틈없는 고밀도 침구 세사리빙이라는 콘셉트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후문이다.

“제가 연기자이기 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집안 물건을 살 때 가장 첫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게 아이들의 건강이에요. 특히 이불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제품은 더욱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사리빙 제품을 써보고 나서 ‘아, 다르구나!’ 싶었어요. 세사리빙만의 초고밀도 마이크로화이버 원단이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예방해 주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물론 예민한 피부의 저희 부부나, 기관지가 약하신 부모님까지도 세사리빙의 마니아가 되었다니까요.”

이번에 촬영된 세사리빙 CF는 지난 10월 1일부터 방영되고 있으며 라디오, 지면광고를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가 모델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져 주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가 연기자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집안 물건을 살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게  
아이들의 건강이에요.  
특히 이불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제품은  
더욱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지면광고,  
차량광고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 SESA Living

새 단 장 한  
모 습 으 로  
고 객 맞 는  
세 사 타 운

지난해 오픈한 친환경 침실 전문 브랜드 '세사리빙(SESA Living)의 270평 규모의 본사 직영점인 세사타운(SESA TOWN)이 확장 리뉴얼하면서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고객을 맞고 있다.

기존 1층에 자리하고 있던 대리점 사업본부의 사무공간을 활용해 43평을 증설했다. 더불어 내부적 공간이동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확보했다. 기존 2층에 위치했던 혼수와 예단 코너를 1층의 확충한 공간으로 이전했고, 수출 전시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2층 전체 공간을 할애해 세사 상설할인 매장을 조성했다.

한편 세사리빙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지 1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으며 올해 15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웰크론한텍 ENC사업부

## 끝을 모르는 질주, 그기분 좋은 첫발을 떼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웰크론한텍에서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기분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바로 웰크론한텍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다는 소식이다. 싱글벙글한

웰크론한텍의 ENC(Engineering & Construction)사업부를 만나러 가보자.



### 플랜트 전문기업에서 종합 EPC전문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웰크론한텍이 더 넓은 꿈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바로 기존의 산업용 플랜트를 전문으로 제조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설계·구매·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Turn-Key)방식의 종합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업으로 활동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같은 웰크론한텍의 탁월한 결정은 벌써부터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전자부품 세정기 제조업체 지디머신즈와 45억 원 규모의 동탄 공장 신축 공사와 더불어 27억 원 규모의 부림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신성약품과 26억 원 규모의 제약 물류창고 신축 계약을 맺는 등 틈새시장을 공략한 웰크론한텍의 사업확장이 또 하나의 주요 매출 구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발 앞선 생각

웰크론한텍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시작되고 있었다. 지난 6월 시공 쪽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해 ENC사업부가 꾸려진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웠을 당시, 윤해균 사장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내 곧 탄탄한 조직으로 이끌었다. 팀원들도 틈틈이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 주력한 결과, 사업부 결성 3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상민** 전무

종합건설 부분의 첫 수주로서 향후 그룹 1조 매출 목표와 실적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웰크론한텍의 능력과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상무

사업부 창립 후 첫 수주라 많은 분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첫 수주가 빨리 터져서 스스로 감격했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는 사업부 모두 내년도 목표를 위해 ENC사업부 화이팅을 외쳐 봅니다!



**김진우** 이사

순조로운 출발로 회사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속있고 든든한, 그래서 누구나 입사하고픈 회사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수주선봉이 되겠습니다. 수주는 생명이다!!



**강용권** 부장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지디머신즈 동탄현장과 김포 제약 물류창고 2건 등을 수주함으로써 한단계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웰크론한텍의 ENC사업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매진할 것입니다.



**윤인오** 부장

ENC사업부의 첫 발을 댄 프로젝트로 규모와는 관계없이 뜻깊은 수주입니다. 김포 제약물류창고 신축공사는 첫 수주의 자신감을 입증한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기대해 봅니다.





권대규 회장

첫 수주 축하! 이를 시발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서와 웰크론한텍이 나아가 국내 최고, 세계 최고가 되도록 열정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ENC사업부 파이팅!



유태수 회장

ENC사업부의 첫 수주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웰크론한텍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철 회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값진 경험, 끈질긴 영업활동과 정확한 기술경험에 의한 견적, 최종금액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결단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의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NC사업부 힘냅시다!



정수현 사원

현재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00% 수주성공을 위해, 소통하는 사업진행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웰크론그룹의 이윤을 추구하고 시너지 효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탄탄한 조직의 비결은 긍정적인 생각과 소통

이같이 발전적인 ENC사업부의 팀분위기는 긍정적인 발상에서 나온다. 회의 때는 물론, 한달에 한 번은 회식자리를 갖고 팀내 소통을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ENC사업부는 특히 회식자리에서 팀원 전부가 돌아가며 건배제의를 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 다같이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넉넉한 덕담을 하기도 하고 평소 마음속의 이야기도 꺼내보는 귀중한 시간이다. 함께 모인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웰크론 가족으로서 동지애와 가족애를 나누며 더욱 탄탄한 팀이 되고 있다.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른 목표를 세우다

웰크론한텍의 행진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듯하다. 2015년까지 EPC사업의 매출액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식품제약 등 기존 사업부문과 연계된 물류창고 공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플랜트 엔지니어업체, 클린룸·에너지·오일·가스설비 업체 등 특화된 전문업체와의 공동 수주를 통해 기업간 시너지 효과도 노릴 계획이라는 웰크론한텍의 ENC사업부. 도전 정신으로 뚝뚝 뚫고 나가 그들이기에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지디머신즈와 45억 원 규모의 동탄 공장 신축 공사와 더불어 27억 원 규모의 부림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신성약품과 26억 원 규모의 제약 물류창고와 신축 계약을 맺었다.



## interview

01 ENC사업부가 결성되고 3개월 만에 3건의 신규 수주를 올리는 쾌거를 얻으셨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우리 ENC사업부가 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웰크론한텍이 설립이후 20년간 다져온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확장이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고 이렇듯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2 웰크론그룹의 기업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인력과 함께 팀을 꾸려나가시면서 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습니까?

처음 세명의 인원으로 ENC사업부를 꾸리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부의 업무 특성상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드자체가 변화하면서 유연하고 밝은 회사분위기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 회의를 하거나 회식을 할 때 저는 팀원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을 강조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팀의 유일한 통일점으로 매사 성실하고 밝은 정수현 사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03 사업부 결성 3개월만에 연이은 수주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ENC사업부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1년 이내에 IT, BT, 식품제약 공장 건설 등 일반산업 플랜트와 향후 발전소, 소각설비, 열공정설비 등 에너지플랜트, 석유화학, 오일·가스 시설 등 화공플랜트까지 설계부터 시공을 One Stop으로 수행할 체제를 1년 이내로 갖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영업활동을 넓혀 웰크론강원과 함께 중소형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최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 5년 이내에는 국내 종합건설 순위 100위 이내 목표와 세계 엔지니어링 도급순위 상위 업체로 등록되어 메이저 플랜트 건설 기술사로 더 한층 도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ENC사업부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의 플랜트 건설은 물론 차별화된 모든 건설에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종합 플랜트 건설의 선두주자로서 역량을 집중하여 웰크론한텍의 기술력을 빛낼 것을 다짐합니다.

웰크론그룹 파이팅입니다.



웰크론한텍 윤해균 사장



## 웰크론그룹 2012 야간행군

#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마저 우리는 하나다!



웰크론 해외마케팅팀 권우현 부장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행군을 하니 참 좋습니다. 이번 행군을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이 조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느끼셨듯이 개인의 체력을 보강해야 많은 정신으로 회사의 목표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최진영 대리

회사 사람들과는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일적으로가 아닌 회사 밖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할 수 있어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우리 웰크론그룹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행군을 통해서 체력이 증진되어 무척 좋습니다.



웰크론한텍 BNC사업부 정수현 사원

처음으로 참여했던 이번 행군에서 웰크론그룹의 한 사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30km를 무사히 완주해 하나가 되었고, 나아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 듭니다. 웰크론 그룹 파이팅♡



웰크론헬스케어 경영지원팀 이용필 주임

평소 친하지 않았던 직원들과 웃고 떠들다보니 부쩍 친해졌습니다. 30km라는 힘든 거리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격려하고 응원해주며 큰 부상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보고 웰크론그룹의 열정, 믿음, 화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웰크론그룹은 구로동 본사를 출발해 양화대교를 반환점으로 다시 본사로 복귀하는 30km 코스의 야간 행군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행군에는 웰크론 108명, 웰크론강원 62명, 웰크론한텍 57명, 웰크론헬스케어 21명으로 총 248명이 참여해 남은 하반기 목표를 다짐하며, 조직 내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웰크론의 강한 결속력

해가 끝자락에 걸린 오후, 웰크론 가족들이 철산고 아래에 모였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고는 오후 4시 쯤, 이영규 회장을 선두로 길게 늘어선 줄이 첫 걸음을 떼었다. 함께 발맞춰 걸으며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고단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내일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렇게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며 고척교, 오금교, 양평교를 지나 6시간 훌쩍 넘어서야 반환점인 양화대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미 해는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다. 웰크론 가족들은 반환점에 도착해 선발대가 미리 준비해둔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남은 여정을 위해 몸을 풀었다. 저녁녘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와 웰크론 가족들의 땀방울을 말려주었다.

웰크론 가족들은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남은 행군을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워져 웰크론 가족들은 서로서로 더욱 밀착한 채 걸여갔다. 행군을 시작한 지 어느덧 4시간이 훌쩍 지날 법도 한데, 웰크론 가족들의 얼굴은 더욱 환해졌고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도심의 건물들도 색색의 빛을 내며 웰크론 가족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마침내 출발한 지 7시간여 만에 30km의 행군을 마치고 처음 출발지였던 웰크론본사로 돌아왔다. 이영규 회장은 속속들이 도착하는 웰크론 가족들을 한명 한명 맞이하며 격려했다. 이날 행군은 웰크론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라고 느끼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이영규 회장은 속속들이 도착하는 웰크론 가족들을 한명 한명 맞이하며 격려했다. 웰크론그룹 가족들은 다소 지친상태였지만 완주의 기쁨으로 뒤풀이를 진행했다.





웰크론강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형 보일러 수출

## 모래 바람을 뚫고 세계로

평택항의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하지만 바빠 움직이는 손길에서

온기가 전해지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웰크론강원 평택항 작업장이다.

12월 15일 1차 납품이 시작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보일러 수출 공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웰크론강원 평택항

작업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 기술력에 대한 믿음, 신뢰를 수출하다

지난 2011년 겨울 중동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웰크론강원이 사우디 '마텐'사와 미국 '알코아'사의 합작사인 '마텐 롤링밀'사로부터 사우디 북쪽 라즈알주르(Ras Az Zawr) 지역에 건설되는 알루미늄 생산 단지 내에 설치될 수관식 보일러를 수주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간당 226톤 규모의 스팀을 생산 공급하는 주기기 보일러로, 웰크론강원 창사이래 단일기기 최대 용량의 보일러 수주 공사다.

본 공사 수주는 사업주체인 마텐사와 감리업체인 플로어사가 국내 보일러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회가 되었다. 마텐사가 GS칼텍스 No.3 HOU 여수 공장을 방문했을 때, GS칼텍스 측으로부터 '웰크론강원의 보일러는 상업운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전정지가 없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웰크론강원의 기술력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웰크론강원의 이름으로 사막 위에 우뚝서다

총 4기의 스팀보일러 납품 일정은 1항차(2012년 12월 17일) 및 2항차(2012년 12월 30일)으로 각 2기씩 웰크론강원 평택 항만 내 보일러 조립공장에서 분할 선적할 예정이다. 기기선적 이후 해상운송을 거친 2013년 3월부터 사우디 마덴 현장에서 본격적인 현장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현장 설치부터 시운전 전반에 대한 기술 감리는 웰크론강원의 보일러 설치 전문가와 시운전 전문 엔지니어가 사우디 현지에서 파견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

그동안 중동지역 국가 중, 이란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웰크론강원은 이번 대형 수관식 보일러 4기 납품 실적을 발판으로, 중동지역 최대 플랜트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웰크론강원은 앞으로 국내 EPC사를 통한 수주영업과 병행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사업주를 직접 컨택하는 영업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그간의 납품 실적과 특화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주와 이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충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 웰크론강원  
사우디아라비아 보일러  
수출 개요

공사명  
Saudi Ma'aden Aluminum Project

사업주  
Saudi Arabian Mining Company

감리사  
Worley Parsons Service Pty Ltd.  
& Fluor Transworld Service Inc

발주처  
삼성엔지니어링(주)

공급사  
웰크론강원

공급기기  
4 x 226Ton/Hr 수관식보일러  
제작 및 납품공사  
(한 시간 동안 220톤의 증기가  
발생하는 규모의 보일러 4개 설비)

공사기간  
2011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수주금액  
USD 24,000,000



웰크론 강원 **이훈규** 상무

## interview

## 중동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Q 이번 수출 건에 대한 대내외적 의미는?

순수 자체기술력으로 시간당 226톤 규모의 대형 보일러에 대한 설계부터 생산제작, 시운전까지 맡게 되는 최초의 프로젝트로서, 웰크론강원의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제작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이번 생산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생산제작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말, 초속 38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볼라벤과 덴빈 등 2개의 태풍이 연이어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평택항 작업장을 강타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였던 기억과 태풍으로 인하여 지체된 생산일정을 맞추려고 밤낮으로 작업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이번 수출이후 웰크론강원의 향후 목표와 계획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200톤 이상의 대형보일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수주지역 다각화를 위하여 중동시장에서의 직접 수주뿐만 아니라 국내 EPC사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수관식보일러 매출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웰크론그룹 베트남 법인-웰크론 글로벌 비나 WELCRON GLOBAL VIETNAM

## 웰크론그룹, 베트남에 신호탄을 쏜다



지난 9월 7일 웰크론그룹이 베트남 남부 호찌민 인근 통탄산업공단에 위치한 토아라이팅 베트남법인을 인수, 글로벌 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베트남 생산공장은 연면적 42,000㎡(12,705평) 규모로 연간 2,400만 장 이상의 극세사 제품을 비롯한 그룹사 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 베트남에서 만난 웰크론그룹, 첫 해외공장 진출기

웰크론그룹은 건강, 물, 에너지, 환경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용 섬유소재, 기능성 위생용품, 에너지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에 이르기까지 소비재와 산업재를 아우르며 이에 맞춰 사세 확장과 해외진출을 준비해왔다. 그러던 중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아직까지도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베트남을 선택했다.

사실 웰크론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미 웰크론한텍이 베트남 하노이 펌시콜라에 수처리 설비를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클리너,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플랜트사업의 진출에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호찌민 인근 통탄산업공단에 위치한 토아라이팅 베트남 법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는 웰크론그룹

사실 아시아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던 웰크론 브랜드가 이번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번에 설립한 베트남 공장을 세계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웰크론그룹의 첫 해외 공장으로서 웰크론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초기 가동은 먼저 본사에서 생산하는 클리너 아이템을 저비용으로 생산하여 기존의 유럽 및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웰크론이 지난 20년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접목시켜 안정된 품질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본사와 베트남 법인간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가공방법으로 극세사 클리너 외에 기능성 침구, 위생용품, 방탄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다행스럽게 웰크론 글로벌 비나는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씩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품질 및 생산성에서도 한국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매출 3,000만 달러 이상, 영업이익 15%이상을 목표로 달려갈 것이다.





웰크론그룹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현장

## 손길을 모아 작은 온기를 전하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추워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다. 모두 두터운 옷을 준비하고 난방기를 점검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이때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의 겨울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작은 연탄 한 장으로나마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연탄봉사에 웰크론그룹이 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 연탄 한 장에 온기를 담아

초겨울 날씨가 제법 매서웠던 지난 11월 23일, 웰크론그룹 4개사를 대표해 모인 웰크론봉사단 30여 명은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연탄봉사는 인천연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는데, 인천 화수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1가구에 연탄 2천 장을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이었다.

매년 이뤄지는 봉사활동이라 이미 경험을 해본 사원들도 있었지만 연탄봉사활동이 처음인 사원들도 있었기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장갑에서부터 조끼, 연탄지게 등 연탄을 나르는데 필요한 물품을 각자 나눈 후, 인천연탄은행에서 나온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각각 업무를 나누어 본격적인 연탄배달에 나섰다.

#### mini interview



하윤형 웰크론 해외마케팅팀 주임

연탄봉사활동은 처음 해보는 가라 설렘 반, 많이 힘들까 하는 우려 반으로 왔습니다. 연탄 나르는 일이 시작되고 각 파트를 정해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연탄을 나를 집들이 가까이 있었고, 남자사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웃으면서 활기차게 연탄을 날랐습니다.

제일 힘든 구역은 지게에 연탄을 올리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연탄이 무겁더라고요. 지게를 지는 남사원들의 얼굴에선 힘든 내색이 없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힘든지도 모르고 더 많이 나르고 싶었던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미있는 일을 했다는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올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미션 성공!

### 집집마다 정성껏 배달하는 따뜻한 손길

연탄봉사는 연탄을 지게에 쌓아주는 팀과 지게로 각 가정에 배달하는 팀, 마지막으로 연탄을 저장 공간에 쌓아두는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대략 500원 정도, 한 장의 무게는 3.6kg이다. 어설픈 초보 연탄 배달부에게는 혹시라도 깨어질까 조심스럽고 또한 만만치 않은 무게였다. 처음엔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없이 연탄을 나르기에 전념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끝까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걸 보니 마음만은 가벼운 듯 보였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나니 어느덧 2천여 장의 연탄이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변변한 연탄저장고가 없는 집에는 배달된 연탄을 꼼꼼히 비닐로 덮어주는 수고도 잊지 않았다. 일을 마무리 할 즈음엔 동네 할머니들께서 씹짓돈을 모아 사다주신 음료수를 나눠 마시며 더욱 힘을 내어 일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연탄봉사를 계기로 웰크론 봉사대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이 보다 낮은 곳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해본다.



#### 후원안내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탄은행([www.yontanbank.or.kr](http://www.yontanban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자원봉사신청 : 032-761-7176, jsh0505@hanmail.net
- 후원금 : 우체국 104026-01-001023, 농협 216032-55-000499(예금주:인천연탄은행)



웰크론한텍, 국내 최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시공 현장

## 아름다운 섬을 더욱 풍요롭게, 물 좋은 추자도 만들기

추자도는 외딴 섬이다. 제주항에서 1시간 30여 분 목포방항으로 배를 타고 가면 그 곳에 추자도가 있다. 어민들에게는 풍성한 황금어장이고 외지인들에게는 올레길 추자도 코스가 펼쳐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관광코스다. 더군다나 이제부터는 수자원도 풍부해진 물 좋은 섬이 되었다.

###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물이 부족했던 섬

한반도와 제주도의 중간에 위치한 추자도는 상·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등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이다. 외딴 섬이라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주항과 목포로 이어지는 뱃길이 잘 준비되어 있어 왕래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바다낚시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한 어군 때문에 낚시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사계절 끊이지 않는 섬이기도 하다. 또한 목포에서 제주로 이어지는 전기 통신 케이블의 중간 지점이라 전기, 통신 또한 여타의 섬들에 비해 시설이 잘 구축되어진 섬이다. 그리고 섬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어획량도 다른 섬에 비해 매우 풍족한 편이다. 전국 조기 생산량 최고를 자랑할 만큼 어장이 풍부해서 추자도는 부자가 많은 섬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추자도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다.



## 빗물을 모아 아껴 쓰던 섬에서 민물이 풍족한 섬으로

추자도는 물자원 이외에 모든 것이 풍족한 섬답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행정구역상 추자면 소속 6개리에 1,300가구, 2천6백여 명이 살고 있어 그만큼 필요로 하는 물의 양도 많았다. 추자도 식수는 빗물 의존도가 높아 가뭄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어획한 수산물을 상품화 처리하는데도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기타 농업용수 등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추자도의 극심한 물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담수정수화 시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이에 가장 적합한 설계자로 웰크론한텍이 선정된 것이다. 이미 2009년도에 칠레에 하루 5,0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한데 이어, 2010년 전남 신안군, 2012년 여수엑스포에 해수담수화시설을 건설한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낸 최상의 성과

웰크론한텍이 추자도에 건설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공사명은 '추자도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다. 웰크론한텍이 이곳에 시설 설비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해수담수화 시설과 저수지를 이용한 수처리시설이 존재하긴 했었다. 하지만 노후되고 규모가 작은 기존의 시설은 추자도 물부족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우선 담수화되는 물의 생산량이 적었고 그나마 생산된 담수 또한 바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수질이 나빴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웰크론한텍 추자도 해수담수팀은 노후된 설비를 대체할 새로운 시설 증설에 나섰다. 기존 4개의 저수지를 이용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정비하고, 해수정화시스템을 통해 담수화 설비도 새롭게 구축했다. 또한 배수지시설도 확충하여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제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허관욱 이사

고도정수처리시설 정비하고,  
해수정화시스템을 통해  
담수화 설비도 새롭게 구축했다.  
또한 배수지시설도 확충하고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제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하루 1,500톤의  
해수담수처리 능력과 하루 1,000톤의  
고도정수처리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추자도 담수장은 하루 1,500톤의 해수담수처리 능력과 하루 1,000톤의 고도정수처리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러한 설비를 갖추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육지에서 먼 섬의 특성상 인력과 건설자재를 조달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해상의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육지와 왕래가 쉽지 않아 일정에도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추자도 지역이 청정보호 구역이라 건설 폐자재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애를 먹었다. 그밖에 크고 작은 난관에 직면하면서도 하나하나 어려움을 극복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월에 설계에 착수해 3월 착공을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는 11월부터 40여 일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올해 말 완공하게 된다. 이로써 추자도는 더 이상 물 부족에 걱정이 없는 풍족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한 웰크론한텍은 추자도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갈등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위 \_ 웰크론한텍 담수사업부 이윤식 과장, 강혁준 차장  
아래 \_ 배경영 사원, 허관욱 이사

## 사보 <Welcron in> 독자들에게 한마디

허관욱 이사 : 웰크론 임직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본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박주태 부장 :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직원 분들과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웰크론한텍의 담수사업부가 계속 좋은 성과를 만들면서 해수담수시장에서 큰 몫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혁준 차장 :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세계 해수담수 플랜트 산업에 진입하는 웰크론한텍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기술개발 및 발전을 이루어 해수담수 분야 전문 업체로 한 단계 도약하겠습니다.

이윤식 과장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준공식을 앞둔 지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뿌듯합니다. 웰크론그룹 임직원 여러분! 추자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기 축제로 유명합니다. 한 번 오셔서 둘러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웰크론, 결승을 향해 힘차게 달려라!



지난 10월 14일,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여의도 공원이 한바탕 시끌벅적했다. 바로 웰크론그룹 임직원 400여 명이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마라톤 대회'(이하 한마음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웰크론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47개사가 가족사를 이룬 후에는 첫 참가여서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

### 하늘 높이 만큼이나 높은 웰크론의 기상

가을이 스쳐가는 제법 쌀쌀한 아침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는 색색의 단풍이 고운 자태를 뽐내며 웰크론 가족들을 반기고 있었다. 그런 가을 정취에 답하기라도 하듯 곳곳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사물놀이 등의 부대행사로 여의도 공원의 열기를 더했다.

이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웰크론그룹 임직원 400여 명은 참가복장에서부터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각 사의 상징색을 바탕으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간단히 몸을 풀어본다. 이렇게 짹짹, 저렇게도 짹짹 스트레칭을 하며 안전사고 대비하는 웰크론 가족들. 이곳에 참가한 많은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가운데 단연 돋보인다. 그리곤 이영규 회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웰크론그룹 구호를 외치고 출발선으로 향했다.



가을의 하늘은 웰크론 가족들의  
 꿈 만큼이나 높았다.  
 10월 하늘 속에 펼쳐진  
 웰크론그룹 한마음 마라톤 대회.  
 웰크론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합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 해프닝 만발, 웃음꽃도 만발

남자사원은 10Km, 여자사원은 5km의 코스를 완주하기로 했다. 출발 총소리와 함께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코스를 뛰기 시작했다. 출발은 순차적으로 하프, 10Km, 5Km, 2Km로 진행됐는데 완주 의지가 충만한 몇몇 사원들이 다른 코스를 뛰는 참가자들과 함께 맨 앞쪽에서 대기를 하는 바람에, 하프 총소리에 떠밀려 부정 출발을 하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 완주자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해 웰크론 가족 모두가 완주를 마쳤다. 완주한 사원들에게는 꿀맛같은 도시락이 제공됐다. 웰크론 가족들은 둥글게 모여 달콤한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완주 메달을 서로 자랑했다. 이날 남자 10Km에서는 웰크론헬스케어 관리본부 물류팀 이동훈 사원이 44분 15초, 여자 5Km에서는 웰크론한택 ENC사업부 정수현 사원이 21분 55초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웰크론강원 경영지원본부 김인수 부장 가족

## 웰크론 가족들에게 전하는 달콤한 와인 한 잔!

날이 부쩍 추워진 연말이다. 벌써 어떻게 한 해가 지났는지도 모르겠다는 김인수 부장 가족. 부지런히 내년을 준비하며 올해도 열심히 달려온 웰크론 가족들에게 축하주를 건네고자 대부도의 한 와인 농장으로 출동했다. 달콤한 포도향이 가득한 그들의 주말 나들이를 들여다보자.

### 향긋한 와인 한 잔과 함께하는 달콤한 주말 나들이

포도철도 아닌 때에 와인농장으로 나들이를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이곳은 바로 김인수 부장의 형이 운영하는 곳으로 전부터 종종 가족들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고 한다. 형이 와인농장을 운영하다보니 김인수 부장도, 아내 양명희 씨도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와인에 대해 어꺼너머 배운 것이 꽤 많다. 명희 씨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각각의 와인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가히 놀랍다.

###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해주고픈 부모 마음

딸 하나 아들 하나. 애교 많은 딸과 든든한 아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가족은 반대다. 큰딸 하림이는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입시생이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 하지만 항상 혼자서 척척 잘해내는 큰딸이기에 부모는 걱정이 없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서툴고 무뚝뚝한 편이라는 하림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귀엽다며 유치원교사를 꿈꾼다고 하니 속은 정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중학교 2학년인 창현이는 한창 연예인 좋아하는 또래의 아이들답게 개구지다. 활발한 성격 탓인지 여행하는 것이 좋아 장래희망도 일찌감치 파일럿으로 정했다. 비행기를 조종하며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창현이는 벌써부터 표정에 설렘이 가득하다. 김인수 부장과 아내는 이런 아이들의 꿈을 그저 부족함 없이 응원하고픈 마음이다.





### 가족에게 한없이 자상한 일등 아빠

두 아이에게 김인수 부장은 더없이 자상한 아빠다.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야구하며 뛰놀고, 겨울에는 눈 쌓인 집 앞 언덕길에서 썰매를 타며 놀아주기도 한단다. 그리고는 집으로 올라와 행여 아이들 감기 들세라 직접 꿀물까지 탄다는 김인수 부장. 아내 명희 씨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김인수 부장의 자식사랑은 꽤 오래 전부터란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직접 씻기고, 재우고 우유까지 먹이며 그야말로 딸 바보, 아들 바보였어요.”

요즘은 부쩍 커버린 아이들이 낯설 때도 있지만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챙겨주는 일등 아빠다. “아마 하림이가 시집가는 날에는 엄청 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아내 명희 씨는 그런 부녀간의 모습이 그저 보기 좋다.

### 친구에서 어느새 부부로

김인수 부장과 아내 명희 씨의 러브스토리는 남의 연애를 돕다 시작되었다. 김인수 부장이 군 제대 후 김인수 부장의 친구와 명희 씨의 친구 둘을 밀어주다(?) 정작 이쪽이 눈이 맞았다고, 동갑내기인 친구 사이에서 부부가 된 김인수 부장 부부. 때론 직장 생활하는데 있어 고민이나 고충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로서, 때론 이해심이 많은 동반자로서 지내고 있단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을 집에 와서 자주 얘기해 줘요. 항상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김인수 부장이 아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던 아내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아내 안쓰럽단다. “형제가 많은 집에 시집과 고생을 해서인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웰크론강원이 웰크론그룹으로 발전하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아내가 저와 동반자로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진행한  
직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온 후  
아빠가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술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 근속 20년을 바라보는 성실맨

웰크론강원의 회계와 경리를 담당하는 김인수 부장은 94년도에 입사해 어느덧 18년차가 되었다. 김인수 부장은 그동안 강원보일러에서 시작해 웰크론강원에 이르기까지 성실함과 남다른 친화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내후년이면 근속 20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게다가 2014년에는 아들과 딸이 각각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현재 교육학과 과정을 수료중인 아내가 공부를 마치는 경사가 겹치면서 김인수 부장 가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듯하다. 이를 기념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내년, 내후년이 더욱 기대된다.

지금처럼 우리가족 건강하길 바라며 서로서로 덕담을 나누는 김인수 부장 가족은 행복한 새해를 소망해본다. 더불어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웰크론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





## 여자들이 사랑하는 천연감촉 예지미인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국내 최초 한방생리대를 개발한 위생용품 브랜드 예지미인이 '숲속이야기 텐셀'®, '포그니 오가닉코튼', '예지보감' 등 기존 제품군에서 보다 확대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 ★자연에서 온 착한 유칼립투스 텐셀

'숲속이야기 텐셀'은 일반 생리대 사용 시 민감한 피부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해 탄생한 프리미엄 생리대로, 국내최초 유칼립투스 나무 유래의 100% 천연 텐셀®을 생리대의 탐커버 국내 최초 적용한 제품이다. 차세대 섬유인 텐셀®은 면이나 양모보다 매끄러운 표면으로 보풀 발생이 적고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며, 박테리아 증식의 원인인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해 더욱 위생적이다. 또한, 텐셀®커버는 폐기 후에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적인 소재인 것이 특징이다.

소형, 중형, 대형, 슈퍼롱 오버나이트, 롱라이너



### ★건강한 나의 시크릿 - 예지보감

예지미인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군인 성인용 기저귀 '예지보감'은 강력한 한방 흡수층이 들어간 프리미엄 한방 성인용 기저귀다. 쑥, 당귀, 어성초 등 5가지 한방성분이 들어가 냄새를 잡아주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벌집모양 패턴의 순면감촉커버와 타사 대비 높은 샘방지막은 우수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중대형, 특대형

### ★내몸에 닿는 유기농 순면 감촉 오가닉 코튼

예지미인의 또다른 야심작인 '포그니 오가닉코튼'은 피부에 닿는 모든 부분이 100% 유기농 순면으로 되어 있어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년이상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토양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포그니 오가닉코튼'의 유기농 면은 국제공인기관인 Organic Exchange(OE)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다. 특히 오버나이트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오가닉 탐시트 제품들 중 가장 긴 40cm로 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형, 중형, 대형, 슈퍼롱 오버나이트, 롱라이너, 일반라이너



생리주기계산  
아이폰전용 어플  
시크릿 다이어리



스마트폰으로 접속  
모바일 사이트  
m.yejimiin.com



## 미리보는 2013년 경제

# “2013년 경제전망과 현명한 투자방법”



## 2013년 새정부 출원으로 기대하는 세계경제

움츠러들었던 미국과 중국이 일정부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양국 모두 새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집권 2기가 시작됐고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탄생했다. 특히 최근 미국은 고용지표가 미약하나마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온기가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토 시간이 갈수록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또 2013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2014년께가 될 것이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 역시 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올해 투자를 미루며 일종의 ‘눈치보기’를 했던 지난 한 해라면 2013년에는 이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한국경제는 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주저앉으면서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2000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은 경우는 없었던 걸 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3년은 2012년보다 경제가 좀 더 활동성을 가질 것을 예상되며 2012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의 경제를 전망해 본다.

## 위축된 소비로 얼음경제 쉽게 녹지 않을 듯

물론 경제의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자체는 예년에 비해 낮다는 뜻이다. 특히 지표는 좋아지더라도 이른바 ‘체감경기’는 쉽게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다. 지표 경기와 실제 경기는 약간의 시차를 두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부채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내할 수 있는 부채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과 연계돼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빚을 내 집을 샀지만 빌린 집값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우스푸어가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된다. 집값을 갚느라 다른 곳에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집값을 대출해 준 금융권의 부실자산도 늘어난다. 결국 금융권은 더 대출을 줄일테고 이는 곧 경기하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 똑똑한 자산관리, 어떻게?

결국 개인 소비자들의 경우 합리적 소비와 투자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전세제적 경기 하락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금리 역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소비는 예년 수준으로 맞추고 무리한 대출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원리금을 갚아나갈 필요가 있다. 투자의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권유하는 목표수익률은 연 7~8%정도다. 3%~4%수준의 정기예금 보다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LS·DEL 상품이나 채권 펀드 등을 이용하면 주식 투자보다 비교적 안전하게 어느정도의 수익률은 확보할 수 있다.

2013년 한국은 성장률의 하락을 막으면서 동시에 경제체질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도약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국민 모두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때다.



## 똑똑한 소득공제를 위한 생활백서

###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체크카드 공제율을 30%로 확대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 단,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볼 수 있는 최대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상황에 맞춰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기존 체크카드에 일정 부분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해 예금 잔액이 소진되면 신용카드로 전환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2. 버스나 지하철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가 된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KTX 등 철도 요금도 가능하며 티머니 카드나 현금, 정기권 등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명식 교통카드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 3.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보험, 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 영수증을 잘 모아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 4. 금융상품으로 두 마리 토끼잡기

저축,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납입한 저축금액의 일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이 있다.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이 있다.



## 웰크론그룹, 사우디 진출. 현지기업과 조인트벤처



웰크론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저트블루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향후 계열사들의 사업영역인 담수플랜트, 황화수설비, 방탄복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위해 양사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MOU 체결 조인식을 갖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사우디에 설립할 조인트벤처명을 '웰크론 아라비아(WELCRON Arabia)'로 명명기로 합의했다. 웰크론그룹과 데저트블루는 이번 MOU를 통해 사우디 현지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설립된 조인트벤처를 통해 웰크론그룹 전 계열사의 전략제품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웰크론한텍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수플랜트의 사우디 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해수담수플랜트뿐 아니라 지하수 개발에 이르기까지 담수플랜트 부문에 대한 폭넓은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웰크론한텍의 주력제품인 에너지절감 설비와 산업용 플랜트건설 부문의 수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형 방탄복의 사우디 수출을 비롯해 극세사 및 나노섬유를 이용한 군복 수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웰크론, 콜롬비아와 조인트벤처 설립



웰크론그룹은 콜롬비아의 '에어로 다이나미카(Aero Dinamica Co., 대표 Huber Espinal)社'와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위해 양사는 5일 오전 웰크론그룹 구로동 본사에서 MOU 체결 조인식을 갖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콜롬비아에 설립할 조인트 벤처명을 '웰크론 다이나미카(Welcron Dinamica)'로 명명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는 방산물품과 에너지절감설비를 중심으로 웰크론그룹 전 계열사의 전략제품을 콜롬비아에 수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도 한 웰크론그룹은 이번 콜롬비아와 기업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웰크론은 에어로 다이나미카를 통해 콜롬비아 공군으로부터 개인 방호용으로 사용될 18만 달러 규모의 레벨Ⅳ급 방탄판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논의하게 됐다. 방산물자의 경우, 납품 실적 여부에 따라 시장 진입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계기로 콜롬비아 군·경찰용 방산물자는 물론 민간용 방탄복까지 납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웰크론, 콜롬비아에 방탄판 수주 계약 체결



웰크론은 최근 콜롬비아 공군과 18만 달러 규모의 레벨Ⅳ급 방탄판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탄판은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개인 방호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납품하게 될 웰크론 방탄판은 NI(미국 법무부 국가사법기구)의 기준 레벨Ⅳ를 충족한다. NI 기준 레벨Ⅳ는 15m 거리에서 1초에 878미터 속도로 날아오는 30구경 칼리버 소총용 M2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피탄 시 관통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충격에 의한 후면 변형이 44mm 이하다.

지난 2011년 신형방탄복을 선보이며 첫 방산시장에 진출한 웰크론은 올해 초 해군에 3,500벌 규모의 부력방탄복 관련재를 공급하며 첫 성과를 올렸다. 최근 해외진출을 시작한 이후, 군·경찰용 방탄복 공급을 위한 입찰 참가 및 민간용 방탄복 납품을 위한 판매 루트 확대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웰크론한텍, 종합 플랜트 건설기업으로 도약



웰크론한텍이 설비사업과 건설사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 EPC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종합 EPC사업은 설계·구매·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의 사업이다.

웰크론한텍은 최근 신성약품과 27억 규모의 제약 물류창고 신축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 규모의 실적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달 전자부품 세정기 제조업체 지디머신즈와 45억 규모의 동탄 공장 신축공사 및 28억 규모의 부림약품 물류창고 신축공사 계약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다. 그동안 웰크론한텍은

매출의 80%를 식품제약설비와 에너지절감설비에서, 나머지 부분을 폐수처리나 해수담수설비와 같은 수처리설비에서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플랜트를 아우르는 건설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 또 하나의 신규 수익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예지미인&세사리빙, '2012 MAMA'서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웰크론헬스케어의 위생용품브랜드 '예지미인'과, 웰크론의 기능성침구 브랜드 '세사리빙'이 지난 11월 30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서 브랜드 및 제품 홍보를 실시했다. 이 날 예지미인은 MAMA 행사장에 예지미인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텐셀라이너와 순한생리대 샘플링을 진행했다. 또한 250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한방생리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당일 행사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레드카펫 포토월에 예지미인과 세사리빙의 로고를 노출, Mnet 생방송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 곳곳으로 방송됐다. 또한 본 방송에 웰크론그룹의 CI가 노출되고 국내방송 tVN, Mnet에는 세사리빙 광고가 이어졌으며, MAMA웹사이트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으로 예지미인 배너 광고를 볼 수 있었다.

예지미인 관계자는 "이번 MAMA 이슈를 활용한 국내 블로그와 SNS는 물론 홍콩 현지 샘플링, MAMA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전세계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예지미인과 세사리빙이 홍콩 및 중화권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2012 MAMA는 전세계 최고 아티스트가 참가해 올해 최고의 아티스트와 음악을 뽑는 아시아지역 최대 음악 축제다. 국내 가수로는 싸이, 슈퍼주니어 등이 참가해 총 52개국 미디어에 노출됐으며 20개국에 생중계로 방송됐다. 방송 전 20일간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1,400만 명이 참여했다.



## 웰크론,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인 멤브레인용 부직포’와 관련한 특허 2건 획득

웰크론이 ‘알루미나를 이용한 높은 제타전위를 가지는 복합방사 부직포의 제조방법’과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인 멤브레인용 부직포의 제조방법’등 총 2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번 특허는 열과 부식 등에 강한 무기첨가제인 ‘알루미나’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액에서 원하는 물질만 걸러주는 멤브레인용 부직포 표면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부직포와 유해 바이러스 입자 사이의 제타전위(원자 내에 존재하는 이종층의 전기적 특성)를 높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활용, 바이러스가 부직포를 통과하지 못하는 원리다.

웰크론은 이번 특허를 통해 높은 제타전위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방사 부직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고유량 수처리 MF 멤브레인에 적용, 높은 바이러스 제거율을 가지는 완제품 필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웰크론한텍, 34억 규모 활성 글루텐 건조설비공장 EPC프로젝트 수주

웰크론한텍은 밀전분 제조업체인 신승산업의 논산공장 활성 글루텐 건조설비 공장 증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은 34억 1천만 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웰크론한텍은 전처리 및 글루텐 건조설비와 공장 건축 전분야를 EPC턴키방식(설계,구매,시공 등을 포함한 일괄 공사 계약)으로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웰크론한텍은 최근 플랜트 종합건설 시장에 진출하면서 설비사업과 건설사업을 아우르는 종합EPC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플랜트 EPC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 웰크론강원, ‘KB 히든 스타 500’ 기업 선정



웰크론강원은 작년 매출액 502억 원과 올해 2분기말 수주잔고 1,019억 원, 5% 이상의 순이익률, 기술부설연구소 보유 등을 인정 받아 ‘KB 히든 스타 500’ 기업에 선정됐다. KB 히든 스타 500제도는 KB국민은행이 재무안정성과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발굴해, 세계적인 수준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의 외감법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추가 조건을 인정받으면 KB국민은행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전담 심사역을 통한 여신심사 및 서류 간소화, 맞춤형 경영정보 제공, 경영 전략 수립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 웰크론강원, 100% 무상증자 결정



웰크론강원은 기존 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무상증자는 유통물량 확대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통주 530만주와 상환전환우선주 103만3천413주에 대해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가 배정된다.이번 무상증자로 웰크론강원의 총 주식수는 1천266만6천826주로 늘어나게 되며 자본금은 26억5천 원에서 5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주 배정일은 오는 12월 6일이며 신주 교부는 12월 24일, 신주 상장은 오는 12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웰크론강원 관계자는“사상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유통물량이 확대되고 활발한 주식 거래를 통해 주주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사, 세사리빙, S/S 품평회 열려



웰크론의 대리점 침구 브랜드 ‘세사리빙(SESA Living)’과 백화점 브랜드 ‘세사(SESA)’가 2013년 S/S 품평회를 개최했다. 세사리빙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제품 컨셉별로 과다한 장식을 버리고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색감이나 포인트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구매고객에 따라 소재와 가격, 디자인을 차별화 해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발 컨셉을 구상했다. 특히 텐셀·면 등 천연소재와 극세사의 결합으로 자연친화적이며 천연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신소재를 개발해 제품에 적용시켰다.

이번 품평회에는 총 56종이 선보인 가운데 34종이 시즌 신제품으로 선택됐다. 이번 S/S 시즌에는 짧은 봄과 상대적으로 긴 여름시즌을 겨냥한 여름용 컬러감과 디자인으로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사는 같은 시즌 컨셉을 자연, 사물, 사람의 모습을 혼합·보완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표현하는 ‘모던럭셔리’로 잡았다. 일상의 모티브를 반복적인 배열과 진한 색감으로 내추럴한 감성을 높이고, 도자기나 돗자리의 표면과 같은 패턴을 활용해 큰 호응을 받았다.

## 웰크론 수요마당 활황 속에 종료…2013년 3월에 재개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웰크론 정기 할인판매 행사 수요마당이 내년 3월을 기약하며 지난 11월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수요마당은 알려지방지 침구, 각종 극세사 소품, 생리대 등을 시중가 50~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수요마당은 평소 웰크론 극세사 제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구로구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세사(SESA), 바숨(Bathom), 알리스(Alis) 등 평소 웰크론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제품을 구매, 재고 소진에도 효과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가을철 환절기를 맞아 알려지방지 침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집안 침구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맞물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수요판매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매출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Q 사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웰크론인 2호에서 생생가족여행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여행을 한번도 못해봐서 그런지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체육대회 등 웰크론그룹이 단합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박은애 님

\* 창립 20주년 고객사은행사 뉴스가 인상깊었습니다. 내년 행사때에는 고객으로 참여해서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또한 웰크론인도 보다 자주 발행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카달로 그도 정기적으로 발행하면 사보와 함께 회사의 신제품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좋은 홍보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백진숙 님

\* 이영규 회장님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웰크론그룹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직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습니다. 지난 2권의 사보를 보면서 짜임새 있고 알찬 구성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호에서는 '직원가족의 회사탐방수기' 같은 코너를 만들어 가족들도 사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박창남 님

\* 집까지 배달되는 웰크론인을 매번 재미있게 정독하고 있습니다. 웰크론인을 보고 있으면 웰크론그룹이 커가고 있는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특히 바쁜 업무속에서도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여유와 단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이외에도 직원들이 사회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김민용 님



Quiz 정답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8만 원 상당의 SESA(세사)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웰크론한텍은 추자도에 ☐☐☐☐☐ 및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준공했다.



힘겹게 시작한 웰크론그룹 사외보 웰크론인이 어느새 3화째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웰크론그룹의 성장을 기원해 주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웰크론인 3호에서도 웰크론 가족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다양한 소재로 담아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날, 웰크론인을 읽으시면서 따뜻한 미소 한 번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행복한 2013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웰크론그룹 홍보IR팀([pr@welcron.com](mailto:pr@welcron.com))



## “우리는 에코 웰크론인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날이 추워지니 하얀 쌀밥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혹시 밀반찬 한 젓가락, 밥 두 숟가락 남겨두고 오진 않으셨나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8천억 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분이 남긴 맛있는 음식이 쓰레기가 되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웰크론이 깨끗한 지구, 건강한 자연을 만듭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단계적 금지되면서

꼭 필요해진 폐수처리시설 설비구축에 앞장서는 웰크론한텍.

웰크론한텍과 함께 웰크론인 모두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합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작은 식기 사용하기, 남은 음식 포장하기 등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 우리는 에코 웰크론인입니다.

-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가치 20조 원
- 그 처리비용 8천억 원

